

## 김형섭 전시 리뷰-Sweet Desire(미술세계)

김형섭이 달콤한 먹을 것을 사진으로 찍는 데는 이유가 있다. 우선 그는 오래전부터 음식관련 사진 일에 관여하였으며 최근에도 그런 종류의 일이 그가 경영하는 스튜디오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한다면 그가 왜 음식물을 피사체로 삼아 작품으로 끌어내려고 했는지 자명해진다. 대개가 그렇지만 작가는 자신의 형성과정에서 경험했거나 조우했던 소재, 혹은 내용을 작품으로 만들어 가는 것에 편안함을 느끼게 마련이다. 억지로 모르는 것을 상대해 씨름하기는 쉽지 않은 까닭이다. 어쨌든, 김형섭은 그가 확실히 이해하고 있고, 동시에 자신의 역량으로 표현 가능한 세계를 분명한 어법으로 그것도 매력을 담아 작품화하고 있다. 초콜릿, 아이스크림, 껌 따위의 입안에서 녹아 그 달콤함으로 기쁨을 선사하는 대상들을 그가 오랫동안 연마한 테크닉을 구사하여 맛깔스럽게 화면을 채워나간다. 테크닉이라는 말을 썼지만, 사진이라는 매체를 본래 기계적 특성을 운명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탓에 언제나 기술(과학)과 예술의 사이를 오갈 수밖에 없는 것이었기도 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기술, 즉 테크닉이란 것도 감각에 의해 지배되는 것이 분명하다면 바로 그런 점에서 김형섭의 테크닉이 빛나 보이는 것 일게다. 소재에 대한 파악과 그 해석 능력, 그리고 그것들을 다루어 가는 솜씨에서 관람자는 명쾌한 시각적 체험- 전혀 새로운 해석의 힘을 경험하게 된다. 사실 이 시대의 예술을 지난 내성적인 시대, 즉 논리와 이성이 예술을 지배하던 시대를 넘어 외향의 시대, 다시 말해서 감성과 표현이 분출하는 시대 속을 통과해 가는 중이기에 작품을 감상하는데 있어 오랫동안 내용을 파악하며 고민하기 보다는 순간적으로 눈앞에 스치는 이미지의 힘만으로도 강력한 예술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김형섭이 구사하는 명랑하고 상쾌한 화면 경영능력이야 말로 대책 없이 심각하여 그만 오리무중이 되어버리는 한국미술의 오래된 습성과 차이를 두며 일견 가벼워 보이는 색채의 판타지로 빠르게, 매끄럽게 이 시대의 욕망과 환상을 요리해 보인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김형섭이 승부를 거는 지점이며 관람 포인트이기도 하다. 어쩌면 그 지점이 이 시대의 정신적 치유에 기능하는 하나의 국면을 보여주는 것인지도 모른다.

김 장 섭(사진가)